

# 숙박 가능 청소년수련시설 절반 '휴관'

### 제주시 수련원·야영장 각 1곳... 유스호스텔 5곳 코로나19에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으로 운영난

숙박이 가능한 유스호스텔 등 제주시지역 청소년수련시설 14곳 중 7곳이 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 등 총 29곳이다. 공공 시설 20곳(직영 14, 위탁 6), 민간 시설 9곳으로 나뉜다.

숙박을 하며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은 청소년수련원 3곳, 청소년야영장 1곳, 유스호스텔 10곳으로 이중에서 청소년수련원 1곳, 청소년야영장 1곳, 유스호스텔 5곳은 '휴

지' 상태다. 여기에는 제주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인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제주시청소년야영장, 명도암유스호스텔도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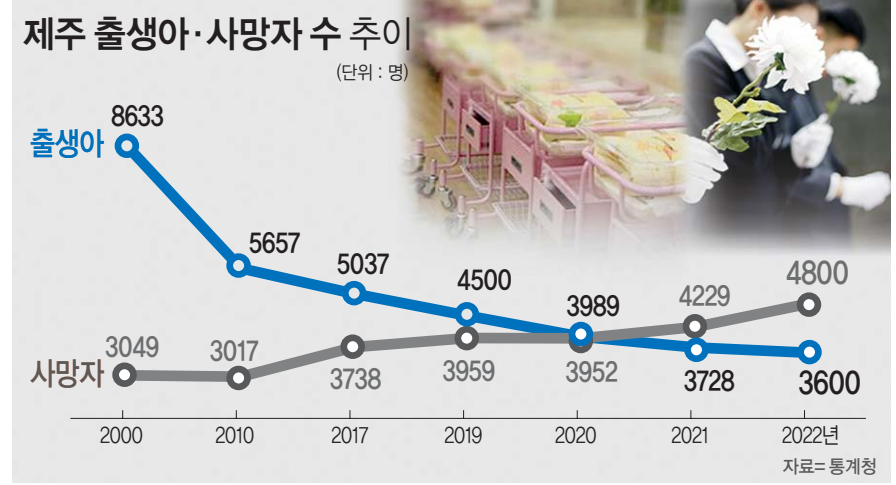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시설 중에도 어려움을 겪는 곳이 적지 않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관계자는 "코로나 전과 비교해 이용객이 4분의 1 정도 줄었다"면서 "수학여행 방식이 단체에서 소규모 단위로 바뀌고 학부모들이 생활권과 가까운 숙박시설에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

는 추세여서 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을 빼면 다들 힘들다"고 했다. 실제 제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간 유지마저 어려운 위탁 시설 한 곳에 지난해 총 1800만원의 위탁금을 지급해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도 동일한 예산을 투입해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휴관 중인 위탁 시설 중에서 봉개동의 제주시청소년야영장과 명도암유스호스텔은 총 23억원을 투입해 기능 보강을 한 뒤 내년 재개장을 추진한다.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은 추후 시설 보수 예산을 확보해 2025년쯤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위탁 시설 중 일부는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설 관리 면에서 직영의 장점이 있지만 예산이 급절로 들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내 청소년단체 관계자는 "지어진 지 오래된 청소년수련시설이 많고 찢끔찢끔 보수를 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적자가 예상되는 시설을 위탁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드문 상황에서 적어도 공공 청소년수련원은 직영으로 전환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mailto:sunny@ihalla.com)



## 최악 치닫는 제주 '인구 절벽'

### 지난해 출생아 3600명 역대 최저·사망자는 4800명 최대 합계출산율 0.92명 그쳐 2년 연속 1명 밑돌며 최저 기록

제주지역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인구가 1000명 넘게 자연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2021년(-501명) 첫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더 확대돼 빨라지는 저출생 고령화 속도를 짐작케 한다.

22일 통계청의 '2022년 사망·출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3600명으로 전년(3728명)보다 3.4% 감소하며 역대 최저를 다시 갈아치웠다. 도내 출생아 수는 2019년 4500명에서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3989명으로 처음 4000명이 깨진 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4000명을 밑돌면서 해마다 최저를 경신중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2021년 5.6명에서 지난해 5.3명으로 떨어졌다. 이 역시 역대 최저다.

도내 합계출산율은 2021년 0.95명으로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지난해에는 0.92명으로 더 떨어졌다. 이같은 출생아 수 감소와 함께 출산율 하락은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코로나19발 충격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출생아 수 감소와는 달리 도내 사망자 수는 고령인구가 늘면서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도내 사망자 수는 4800명으로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처음 4000명을 넘어선 2021년(4229명)

대비 13.5% 늘었는데 통계청의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 증가율이다.

이처럼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훨씬 웃돌면서 1200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2017년만 해도 1299명의 인구가 자연증가했던 제주지만 2021년 사상 첫 자연감소(-501명) 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이어지고 그 숫자도 확대됐다.

특히 제주 이주 열기도 전갈지 않아 유입되는 인구 증가가 둔화세인데다 대학 진학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는 20대 인구는 증가 추세여서 인구는 갈수록 정체해 예상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가 2015년(62만4395명)과 2016년(64만1597명)에 각각 전년 대비 2.8%씩 늘어 정점을 찍은 후 갈수록 증가폭이 둔화돼 지난해 말에는 67만8159명으로 0.2% 증가에 그치며 2008년(0.2%)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던 데서도 알 수 있다.

문미숙기자

##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으로 일원화

### 검찰 "신속·효율적 진행"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앞으로 군법회의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까지 맡는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과 제주지검은 22일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합동수행단 명칭도 기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으로 변경됐다.

지난 2021년 11월 24일 출범한 합동수행단은 4·3 당시 군법회의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왔다. 제주4·3특별법이 직권재심 권고 대상을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4·3 희생자 2530명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법무부는 나머지 4·3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지난해 8월 직권재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업무를 제주지검에 맡겼다. 그러나 4·3 직권 재심만 전담하는 합동수행단과 달리 제주지검은 다른 사건도 처리해야 해 업무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4·3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반재판, 군법회의 가릴 것이 4·3 직권재심을 합동수행단이 맡도록 한 것은 이런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도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도민 의견을 경청하며 직권재심 업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이제 봄이 오려나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찾은 도민들이 꽃망울을 터트린 꽃과 나무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 "핵 오염수 대응 강화하라"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2일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와 도정이 소극적인 대책에 머무른다면 청소

년을 필두로 모든 시민들이 거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제주행동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인류와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영기자

# 당 축 선



## 한라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사장 김창남의 당선 연임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창남**



### 한라새마을금고 임·직원 일동

# 수 축 상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김용범**  
(응답1동직실자봉사회 초대회장)  
(경동천막사 대표)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일동**

# 취 축 임

## 양씨종회총본부 회장



**양송남**  
(본회 회장)

양씨종회총본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중학교 제20회 동창회 회원 일동**